

- 주요 뉴스: 경기침체 가능성 증대에 따라 연준의 양적긴축 조기 종료 기대 확산
 - 미국 2/4분기 비농업 노동생산성, 2분기 연속 하락. 단위노동비용 상승세 지속
 - 영란은행 부총재,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강도 높은 통화긴축 필요
 - 중국 정부, 부동산 위험 점검을 위해 부동산 신탁회사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
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
주가 하락[-0.4%], 달러화 약보합[-0.1%], 금리 상승[+2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Micron 실적 둔화 전망 및 기술주 약세 등이 원인
유로 Stoxx600지수도 기술주 중심으로 0.7%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7월 소비자물가 발표를 앞둔 관망심리가 영향
유로화가치는 0.2% 상승, 엔화는 0.1% 절하
- 금리: 미국 국채금리는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하며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심화
독일은 ECB의 9월 금리인상 전망 강화 등으로 2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07.2원, +2.6원) 0.2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8/9일	8/8일	전일대비			8/9일	8/8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22.5	4,140.1	-0.42%	국채 금리 10y	미국	2.78%	2.76%	2bp
	유럽	435.98	438.93	-0.67%		독일	0.92%	0.90%	2bp
	중국	3,247.4	3,236.9	0.32%	CDS 5y	한국	39bp	39bp	0bp
	일본	28,000	28,249	-0.88%		중국	78bp	78bp	0bp
	한국	2,503.5	2,493.1	0.42%	위험 지표	EMBI+	-	425	-
환율	달러지수	106.30	106.44	-0.13%		VIX	21.77	21.29	2.25%
	유로화	1.0213	1.0197	0.16%		WTI유	90.50	90.76	-0.29%
	엔화	135.05	134.95	-0.07%	원자재	구리	358.6	358.7	-0.03%
	위안화	6.7527	6.7512	-0.02%		금	1,794.3	1,789.0	0.30%
	원화	1,304.6	1,306.4	0.14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경기침체 가능성 증대에 따라 연준의 양적긴축(QT) 조기 종료 기대 확산

- 최근 파월 의장은 양적긴축이 2년~2년반 정도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내년 중 양적긴축이 끝날 가능성에 주목
- 양적긴축 규모는 금년 6월부터 월간 최대 475억달러 규모로 시작되었으며 9월에는 월간 최대 950억달러로 늘어날 예정. 연준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약 9조달러인 자산규모는 양적긴축 종료 시 6~7조달러 수준으로 감소
- 도이치뱅크, 연준이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9월쯤 금리인하로 돌아서면서 정책 혼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양적긴축도 종료할 것으로 전망
- 2019년처럼 은행시스템에서 너무 많은 유동성을 흡수하여 단기자금시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도 양적긴축 중단 요인. 바클레이즈는 2023년 초부터 과도한 유동성 흡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
- UBS, 향후 양적긴축 시나리오는 경기사이클, 인플레이션 행방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으나 현재 연준의 계획은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2/4분기 비농업 노동생산성, 2분기 연속 하락. 단위노동비용 상승세 지속

- 비농업 노동생산성은 4.6%(전기비연율) 감소하면서 예상치(-4.7%) 및 전기치(-7.4%) 상회. 단위노동비용은 10.8% 상승해 전기(12.7%)보다 오름세가 둔화했으나 예상치(9.5%)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
- 시장에서는 팬데믹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생산성 악화의 원인으로 제시. Wells Fargo는 생산성 증가세가 팬데믹 이전보다 악화되었으며, 단위노동비용 상승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(2%) 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

■ 미국 바이든 대통령,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법안에 서명. 미국 내 생산 유도

- 법안에는 반도체 기업의 생산,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527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과 반도체 공장 건설 기업에 대한 25%의 세액공제 등이 포함

■ 영란은행 부총재,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강도 높은 통화긴축 필요

- 람스덴 부총재는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금리인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단. 경기침체 위험에도 불구하고 양적긴축도 예정대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

■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, 독일 경제에 2,600억유로 상당의 피해를 야기

- 연방고용청 산하기관인 IAB의 연구에 따르면, 러-우 전쟁은 '23년에 GDP 1.7% 축소와 24만건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추산. 이후 '26년까지 고용 회복이 어려울 것이며, 숙박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

■ 러시아,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. 서방의 제재가 원인

- 국영 송유관회사 트란스네프트는 우크라이나가 체코, 헝가리, 슬로바키아로 향하는 원유 공급을 중단했다고 발표. EU의 제재로 인해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우크라이나의 송유관 운영업체가 운송을 거부한 점을 원인으로 지목

■ 중국 정부, 부동산 위험 점검을 위해 부동산 신탁회사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

- 전문가들은 부동산 업황 둔화가 그림자금융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염되는 위험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

■ 호주 중앙은행, 디지털 화폐 발행의 경제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시작

- 디지털 화폐(CBDC) 발행이 호주 경제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에 중점을 둔 연구를 1년간 시행할 계획. CBDC 발행에 대한 기술적/법률적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모델에 대한 연구가 포함될 예정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8/9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7월 NFIB 중소기업낙관지수: 89.9, 6월(89.5), 예상치(-)
- 일본 7월 M2 통화공급(전년동월비): 3.4%, 6월(3.3%), 예상치(2.8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8/1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7월 소비자물가, 일본 7월 생산자물가
- 중국 7월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, 7월 신규대출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유럽,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 최소화 가능 - Financial Times

(Europe can withstand a winter recession)

- 유럽은 올 겨울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 등으로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. 이에 따라 난관을 빨리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요구되는데, 우선 필요한 것은 각국이 에너지 자원 민족주의를 피하는 것
- 에너지 전환도 필수. 독일은 수입한 러시아 천연가스의 상당량을 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생산공정을 전기로 대체 중
- 이에 더해 유럽의 재생에너지 전기발전 능력은 금년 15% 향상 전망. 마지막으로 역내 국가 간 천연가스 공유 및 가계의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이 필요

■ 미국 경기침체 위험이 지나갔다는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 - Financial Times

(It is too early to declare risk of US recession is over)

- 7월 고용지표는 일자리 수, 실업률, 임금상승률 등에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고, 이에 따라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증가. 하지만 기업들의 감원 계획 등 부정적 징후도 늘어나고 있는 등 경기침체 위험은 여전
- 높은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및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 등은 기존의 경제분석 방식으로 볼 때 성장여력의 악화를 의미

■ 미국 경제, 양호한 노동시장 및 인프라 투자 등을 고려 시 낙관 가능 - Financial Times

(There are reasons to be optimistic about the US economy)

■ 미국 연준, 고물가 둔화 시에만 추가 금리인상 폭 축소 소지 - Financial Times

(Fed help isn't coming)

■ 미국의 국채수익률 역전, 과거와 달리 연준의 고물가 통제 가능성 시사 - 블룸버그

(The Bond Market's Yield Curve Has Lost Its Way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